

세계 섬사람들, 신안 퍼플섬에서 하나로 뭉쳤다

신안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 성료...퍼플섬 의정서 채택 국제네트워크 조직 등 섬문화 지속가능발전 공동 모색키로

대한민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에서 열린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은 전 세계 섬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섬 문화를 공유하고 기후이기에 맞서 섬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지난 8~9일 신안 자은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올해 신안군이 유치한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사전 국제행사로 신안군이 세계인이 모여 섬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특별사절단으로 구스데 나마루파 발리 바둥주 관광청장, 올란도 페르도모 스페인 마드리드관광청 국장, 제리 브리트 주 사모아 대한민국 명예영사, 하이에 알레한드레 주한 스페인대사관 관광영사, 드웨인 벤틀리 사모아관광청 총괄국장, 미카일 토노 글로 전주대 호텔관광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세계적인 포럼의 면모를 갖췄다.

스페인·사모아·인도네시아·그리스·마셜제도 등의 섬 주민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신안군민 등이 함께한 이번 포럼은 강연과 워크숍, 유네스코세계유산기구(UNWTO) 세계최우수관광마를 느끼기 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섬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 관광 ▲기후위기 대응 등 3개 섹션으로 나누어 기조연설과 사례발표로 꾸며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 퍼플섬 의정서'를 채택했다. 섬 의정서는 '세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조직해 세계 섬문화를 창의적으로 소개하는 장을 마련할 것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범사례를 공유, 논의하고 '섬 기후 변화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세계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사무국을 신안에 설치하는 안과 매년 포럼, 전시 공연

등을 소개하는 장을 연 1회 이상 만들 것 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첫째날 포럼 후에는 '섬의 맛과 멋 느끼기'로 만찬과 공연이 펼쳐졌다. 만찬 음식은 신안군의 신선하고 특별한 식재료로 차려졌다. 나아가 발리 전통극, 사모아 춤, 가야금 심어송라이터 연주 등이 포럼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포럼 둘째 날에는 '섬 문화 워크숍'과 '신안섬 느끼기 투어'가 진행됐다.

워크숍은 포럼 주제와 같은 세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신안섬 느끼기 투어는 '퍼플섬의 문화, 자연, 사람 느끼기'를 주제로 퍼플섬인 반월·박지도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포럼장 주변에서는 부대행사로 '특별 사진전'과 '세계섬문화전시'도 함께 열렸다. 영국 출신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 작가가 2013년 신안 섬과 풍경을 찍은 24점의 흑백사진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이 밖에 행사장 옆 B존에는 포럼 초청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마셜제도 등의 섬과 신안군의 대표 제품, 여행정보 등이 전시됐으며 유네



지난 8~9일 신안 자은도에서 개최된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에서 박우량(가운데) 신안군수와 포럼 특별사절단으로 임명된 세계 섬 문화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 홍보와 함께 카누 전시, 배틀짜기 체험 등도 진행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 세계의 섬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미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와 있는 '기후 위기' 극복 방

안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번 포럼의 결과물로 채택한 '퍼플섬의정서'는 우리가 꿈꾸는 섬의 미래로 가는 첫 번째 좌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근대역사거리 교통환경 개선된다

오늘부터 해안로173번길·163번길 일방통행·가변주차 시행

목포 근대역사거리 주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 및 교통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유담동-만호동의 근대역사거리 주변 교통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다.

우선 시는 오는 12일부터 ▲해안로173번길(근대역사1관→여객선터미널 인근, L=500m) ▲해안로163번길(신안교육지원청→조원골드맨션, L=300

m)을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해안로173번길의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를 시범 운영했고,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4억원 포함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가변주차는 매월 15일 주기로 운영되며, 일방통

행 시행으로 시내버스 7번과 60번은 노선이 변경된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에 7번은 노선이 변경됐는데 60번은 12일부터 7번과 동일하게 노선을 운영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일방통행과 가변주차 운영이 보행로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확보해 보행자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포근대역사거리를 찾아주는 분들이 최소한 교통과 관련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무안군, 탄도만에 어미낙지 1만1500미 방류

무안군이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의 자원 조성을 위해 낙지조업이 마무리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약 1만 1500미의 어미낙지를 탄도만 일원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낙지는 내년 봄 산란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20년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지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등 낙지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탄도만 일원에 낙지가 산란할 수 있는 서식장을 4개소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금어기 기간 동안 어미낙지 3만 1000마리와 먹이생물인 칠게 800kg를 방류해 자연산란을 통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했다.

무안군은 2023년부터 산란·서식장을 2개소 추가 조성해 총 6개소를 운영하고, 낙지북장도 3개소에서 1개소 더 늘려 4개소를 운영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자원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군,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 전남 유일...100만원 포상금

해남군이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에서 전남 지역에선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군은 그동안 '공직자 음식집담담'로 전 공직자가 일제 출장을 통해 식중독 예방 안전 수칙과 기본 위생점검사항을 점검하고 동시에 신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배부, 지역대표음식점인 닭요리촌에 대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 해남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발생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최근 7년간 식중독 발생 제로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해남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민속씨름단 존폐 연말 판가름

공론화위 구성...설문조사·군민참여단 통해 의견수렴

영암군이 민속씨름단의 존폐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최근 회의를 갖고 핵심의제를 선정하는 등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의 위원으로는 갈등관리 분야 박선우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이경순 갈등조정센터 상임이사, 조사통계 분야 정기영 세한대 교수·김명진 전북과학대 교수, 체육분야 김욱주 조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5명과 김강식 영암군 사회단체연합회장, 이용에 영암군 이장단체회장 등 지역사회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또 공론화 전문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공론화 추진 배경과 위원회 설립 배경 및 목표,

운영방안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핵심의제로는 영암군민속씨름단 존치 여부,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의 효과,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선정됐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표본 수는 500명으로 하고, 군민참여단은 1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32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설문조사는 12일까지 군민(오프라인)과 향우(온라인)를 대상으로 씨름단에 대한 인식조사와 군민참여단 참여 의향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민참여단은 속의 워크숍과 2번의 토론회 등을 거쳐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가에 배치

필리핀 리잘시서 31명 입국

진도군이 농·어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 농가에 배치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진도군-필리핀 리잘시 간 MOU를 체결, 모집 후 절차를 밟아 필리핀 계절근로자 3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이 처한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5개월 내 단기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 있던 계절근로자 4명을 포함한 35명은 해조류 양식장이 있는 어가에,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 등으로 입국한 59명은 농가에 배치돼, 총 94명의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배치됐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연말까지 58명을 추가 입국시켜 30여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진도=이종수 js7777@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